

10년 전대협·한총련이여



애국 전복대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대의 학생운동조직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지난 5월23일(목)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제4기 한총련 출발식을 개최했다. 전복대는 학관 건물을 플래카드로 덮는 등 세심한 대화준비로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머물수 없는 그리움으로...

이번 한총련 전야제행사는 5월23일(목) 늦은 7시부터 시작 4부로 나누어 열렸고 전북지역의 여러 문예패와 한총련 문예패들이 흥을 돋구었다. 전야제에는 전대협·한총련 의장단이 나와 학생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는 등 10년의 성과를 총화하는 정으로 마련됐다.



투쟁으로 애국하는 한총련 백만학도여...

지난 5월 24일(금) 한총련 출범식대회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영기(전남대 총학생회장)군은 남한 사회모순의 근원이자 광주항쟁 무력전입을 승인한 미국의 전상규명·공개사과와 민의를 제버리는 김영삼정권의 타도를 위한 한총련 백만학도의 투쟁을 결의하며 식발했다.



내일을 여는 웃음

밝게 웃는 젊음, 한총련 행사기간에 무척이나 많이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바로 여기모인 이들이 꿈꾸는 내일의 모습이었다. 그 웃음은 진정 민주화된 내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청사진이었다.



만나야한다

이번 한총련 행사에는 민족의 삶을 꽃피운 미술품들이 설치되어 학생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행사기간 전시된 미술품들 중 통일의 꿈을 담은 한 작품이다.



마장가도 국보법은 싫어요

전국학생정치연합에서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법임을 홍보하기위해 제작한 독특한 조형물.

이제 4천만의 숨결로 피어나라



이만하면 잘 됐다 그지

이번 현충선 행사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경민, 통일돌고래, 먹치기 등) 여러가지 행사가 열리고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사진은 장승각기에 참가한 한 여학생의 진지한 모습이다.



자 다함께 연주

한충선 출범식 기간에는 본 행사 외에 통일장터, 사물놀이, 백경 등 여러가지 문화행사가 전복대 곳곳에서 펼쳐졌다. 사진은 문화행사의 하나로 장승각을 공연하고 있는 장면이다.



통일의 마음담아

전북대 학생회와 일 동정에 설치된 인공분수. '통일분수'라고 이름 지어진 한반도 모양의 인공분수에 한 학생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동전을 던지고 있다.



오아, 시원해

출범식 기간의 날씨는 짙은 일기와 더불어 무척이나 더웠다. 대히 둘째날 부른별 김의대회를 마친 한 부리의 학생들이 운동장 옆에 임시로 설치된 수도장에서 대위를 식히고 있다.



연사의 길 따라

전주에서 출범식을 마치고 서울로 상경한 서울대학교 학생회연합 소속 학생들은 권회정 열사 49재를 치르기 위해 삼산역으로 향했다. 49재를 마친 후 서울로 소 속 학생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산자관 공개, 교육제정확보'를 외치며 거리시위를 나눴다. 사진은 권회정양을 기리는 플래카드와 깃발이 걸려있는 돈암동 거리를 거쳐 삼산역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배경으로 쓰인 사진은 건대협-한충선 10년을 기념하며 전북지역 8만 학생들이 모은 8만개의 장등으로 만든 높이 10m의 기념탑이다. 집단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작 사진부

□ 5·31교육개혁안 1주년을 생각한다 ① 학부제

“저, 고 3으로 되돌아 갑니다” ‘교육개혁(惡)안’ 시행 1년 ... 되살아나는 경쟁교육

‘교육개혁’이라 자처하며 등장한 정부의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년을 맞는다. 지금, 제2차 교육개혁안의 발표로 실제를 드러낸 ‘교육개혁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시키고 학원을 경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학부제, 대학총합평가인정제 등 5·31교육개혁안이 갖는 현재의 의미와 모순을 알아보기로 한다.

15년전의 오류 또 다시 재현
“15년전에 외대가 학부제를 도입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박정희의 정권이 지난 74년 본교는 ‘현재 상의 학부(제일)’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1년후부터 소속계열학과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학과의 특성과 자기적성, 흥미, 희망에 따라 2학년 전입식 전형을 채택했다. 이는 이른바 ‘실용대학’으로서 계열별 모집을 범용학부(범역학), 범과학, 행정학과, 상경학부(범역학, 경제학)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시행 15년째 맞은 84년 3학년에 의한 인위적 학과 조립 △학년단위 소속학과 없이 계열에만 묶여 있어 나타나는 소속학과에 따라 83년 학제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96년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이란 구호를 단 정부의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본교도 비이론계열 6개학과에 학부·계열모집을 표방하고 지난 3월 1,050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였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낳은 신입생경쟁
“학부제는 본래 정점이 많기에 실시된 것으로 있다. 그런데 우리학교의 학부제는 장점을 살렸다고 보기는 단점이 부각된 것 같다”라며 용인캠퍼스 인문학부 새내기들은 말한다.

임시반으로 언어학을 전공과목으로 선택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5·31교육개혁안 실시예이다.

간단히 말하면, 학부제는 유도와 타 대학 상황 속에서 도입된 본교의 학부제는 그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행·재정적 차등지원에 편승해 사립대의 과잉입학 급속도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후 나타나는 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떠나는 것은 대학학부의 도입이 이들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문학부를 비롯한 4개 단과에 학부제를 도입한 새세대는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등 4개학과를 인문학부로, 회계학과 산악디자인학과 회화·산악학과 등으로 통합했다.

폐단속의 학부제 전면 철회되어야
97년 대학총합평가인정제를 받는 본교는

보다 나은 점을 찾기 위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학부제 또한 정부의 이러한 경쟁유도 정책에 편승한 제도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교육부의 유도와 타 대학 상황’ 속에서 도입된 본교의 학부제는 그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행·재정적 차등지원에 편승해 사립대의 과잉입학 급속도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후 나타나는 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떠나는 것은 대학학부의 도입이 이들 더욱 부추길 것이다.

김정희 기자

외대와 나

외적발전에 상응하는 내실 기해야



오 경 복
(국어국문과 강사)

중인 건물과 운동장의 주차장화로 인해 교정이 약간 넓어진다. 더욱이 대학교정 내의 ‘주차시설 유희화’는 불합리한 현실의 추세를 반영하는 듯 하여 충격을 주었다. 이렇듯 이러한 변화는 결국 외대의 왕성한 성장과정을 대변해 주는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강의 실보다도 운동장을 활기차게 하는 데 보다 더 기여한 듯 하다. 그리하여 이같은 외적 발전에 상응하는 내실은 얼마만큼 기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왔다.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 그로 인해 거처를 옮기는 학생들도 한층 더 많은 교육정책, 그로 인해 거처를 옮기는 학생들도 한층 더 많은 교육정책, 그로 인해 거처를 옮기는 학생들도 한층 더 많은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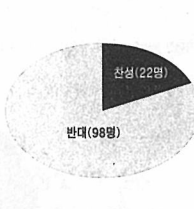
반면에 아낌없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같은 외적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외대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네르바 동산’과 ‘모험학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 캠퍼스와 마세르캠퍼스 산은 아직도 잔재하다. 미네르바 산악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그리스 신화의 아테네에 해당하는, 즉, 이 동산은 대학 생활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상징물인 셈이다. 여기서 ‘지자동 지자라(知者動 知者動)’이라는 논어의 구절을 되새겨볼 만하다. 지자는 그 지혜를 통해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현명함으로 즐겁게 산다는 뜻이다. 또한 용인캠퍼스가 자리잡은 모험산에는 고려말 충신 장공주의 사당과 묘가 있다. 지평선보다도 운동장을 활기차게 하는 데 보다 더 기여한 듯 하다. 그리하여 이같은 외적 발전에 상응하는 내실은 얼마만큼 기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왔다.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 그로 인해 거처를 옮기는 학생들도 한층 더 많은 교육정책, 그로 인해 거처를 옮기는 학생들도 한층 더 많은 교육정책...

학부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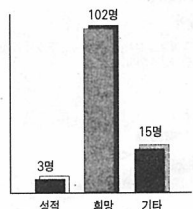
학부 계열모집으로 입학한 새내기 1,050명. 이들은 학부제를 전공선택의 기회확대, 다양한 학문의 시도를 긍정적 측면을 포함한 신교육정책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새내기 120명을 대상으로 학부제 설문을 했다. 학부제 도입 4대 단과 새기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96명의 학생이 학부제를 반대한다고 답을 했고, 85%가 넘는 인원이 전공선택식 수업의 희망을 우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본교의 교육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학부제 반대한다 81.7%

1. 학부제 도입에 관한 입장은



2. 2학년 전입식 전공선택 기준은



3. 새네기가 생각하는 학부제는

학부제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원후에 실시된다면 긍정적인 뒷받침이 미비하다. 선후배간의 유대감 결여, 동기간의 연대감도 없다. 많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학부제는 경쟁심리를 자극한다. 성적위주의 삶. 아니라고 싶다. 학부제 학생회 조직 하나 만들었으면 대학에서도 제 2의 수평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제 새내기 열두

도시락 파동

○ 한층더 출렁이는 도시락 파동
때를 도시락이 모자라 밥을 굶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크로니클을 알아보니, 대학생 약 4만명에 전경까지 가세하여 전주지역 도시락 업체 도시락이 바닥났다는데...
정철! 학생들 잔치에 축하하는 뜻에서 망정 공경체로 물고 받까지 찾아와야겠다! (숙)
많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학부제는 경쟁심리를 자극한다. 성적위주의 삶. 아니라고 싶다. 학부제 학생회 조직 하나 만들었으면 대학에서도 제 2의 수평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제 새내기 열두



인간들 비방할 때는 언제고...
신남은은 정치는 나라, 우리나라 공구부 나라 (은)

○ 비방맞는 기분이 이렇게
도 슬플줄 줄이...
이런데도 정치는 나라, 우리나라 공구부 나라 (은)

○ 절대 전철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김씨가 두 손을 부여잡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
을 보고 있던 크로니클자는 말하기를 “뜻밖에도 슬개도 없는

권위를 먹고 사는 어른신들
사건까지도 위태로워 있는지요?
(영)

○ 애영. 지금은 실제상황,
실제상황이다. 영화가 아니다.
다. 검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슬픔을 때려 모태대학생정신
이 타고 있던 해시를 둘러싸고
총화정신들을 남치했습니.

현력은 정당한 대공분할에 수감
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학생들을 탄압하
려는 자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공경보. 공공경보입니다. (은)

공공경보
공공경보

비둘기철판

왕산골

□ 알립니다

- 하늘사랑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인연하세요. 하늘을 마음껏 누비는 활동 동아리 하늘사랑에서 여러분의 지상달들을 도와드립니다.
- 5월 29일(화) 5월 31일(금)
곳: 명수당 (하늘사랑)
- 제2 통호회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제2통호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2통호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영, 상월, 학내에 한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정회원 가입비용은 없지만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제2통호회 사라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5-388-1774 (제2통호회 사랑하는 이)
- OUTSIDE LIVE 공연이 있습니다. 5월 29일(수) 늦은 2시
곳: 노천극장 (OUTSIDE)

□ 찾아주세요

-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파란색 31번 반지갑입니다. 연락처는 015-358-2892입니다. 연락되는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지갑안에 든 현금은 없어도 좋습니다. (지갑이 그리운 이)

□ 알립니다

- 영어교육과에서 원어연구금미련을 위한 ROCK HOP을 합니다. 5월 31일(금) 늦은 1시부터 11시까지
곳: 외대 호프 (영교관영어국문포럼)
- 아랍.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아기가 함께합니다. 제목: 이슬람 세대에 두 기독교는 있는가? 5월 30일(목) 늦은 5시
곳: 사회과학관 505호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란과 터키와 대 환영! (아랍어과 지도교원)

Alouette 회화반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5월 27일에 96학번은 시청각교육원 403호로 15학번은 시청각교육원 404호로 오십시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5월 31일(금) 늦은 5시
곳: 대강당 (Alouette 회화)

대국어과에서는 과 참정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대국영화제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수) 5월 28일(목) 늦은 2시
5월 29일(금) 늦은 5시
5월 30일(토) 늦은 2시
곳: 대강당 (아랍어과 학생회)

인터네트 교육이 있습니다.
5월 29일(수) 늦은 8시
곳: 대강당 6104 (세계경제대학회)

한층더 출렁이는 다녔오신 외국대 참가단 여러분, 그대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국외대 총학생회)

정치외교학과 4학년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5월 27일(월) 5월 30일(목)
곳: 재주도
회비: 1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장실 게시판 참조 (졸업예정 준비부)

- 전담도 동문회가 있습니다. 5월 31일(금) 늦은 5시
장소: 상정당 (전담도 동문회)
- 이란과 산해! 두 번째. 더는 남에게 공부하지마라! 힘내세요! 5월 29일(수) 대 운동장에서 1부 1시 10분 대 2부 3시 40분 체육대회이 있습니다! 모두모두 오세요. (이란과 새내기 선전부)
- 휘문고 여러분. 덕성대에 '여'학원! 함께 모교지를 갑니다. 5월 31일(금) 6월 1일(토) 연락처: 015-384-5510
*87기 이하들은 모두 참석하시고 공금헌신금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휘문고 동문회)
- 외대연극회 제22회 workshop 공연이 있습니다. 제목: 우리 나날을 불렀다. 곳: 대강당 (외대연극회)

시행착오 속 ID카드 발급 지연

신입생·복학생 도서관 출입·대출 불편

올해 개교가 대략 1년째인 ID카드 신규 발급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대학내각의 부실행정이 의심되고 있다.

대학내각은 이에 대해 "신청서를 모아서 제일은 빨리요"라고 답변하고, 은행에서의 발급 과정이 지연돼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학생 한 명은 "대학내각과 은행간의 시행착오를 떠나서 5월 중반에도 불구하고 학생증 발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4월에 걸쳐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된 ID카드도 신입생·복학생 모두에서 교부하는 학생증 발급·은행거래 신청서 작성해서 교내의 확인작업을 통해 은행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과정에도 그

동안 발급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의 거센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은 최근까지 도서관 출입이 불가능해 몇몇 관리조치 행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학내각은 뒤늦게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신분증·학생증발급의 제1호 신입생들의 도서관 출입을 허가했다.

또한 대학내각은 이후 관계기관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시행착오에 진해는 이 ID카드 발급의 확인을 위해 대학내각은 97년도 1학기 초부터 발급 후 실시되는 신학기발급에 맞춰 신입생들에게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소정양식서류를 보내 확인이 나오는 대로 미리 발급을 완료시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내각은 은행의 발급작업에 있어 업무절차개선에 대한 제

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이번 ID카드의 직불카드 적용으로 이용자는 은행에 학생수에 따른 구좌를 확보하게 된다. 대학내각이 은행과 맺은 계약조항 제9조에는 "학생증카드를 이용한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액의 0.1%를 학교발급금으로 하며 그 시기는 대학과 상호협력에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열린총장상이라는 학생참여공간에 학생들의 제안에 따라 시행된 ID카드의 대학내각의 전신화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준비없이 일발이기의 대학내각의 행태는 빠른시일내의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영수 기자

직원노동조합을 진단한다

학내 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야

본교 직원노동조합(직원노조)은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대학지침선,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학원공동체 건설, 직원의 권리보장 및 자생적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87년 10월 창립했다.

노조가 창립 후 88년 1월의 대학내각에 대한선과 결산의 공개 등 9개항을 요구한 첫번째 활동을 시작으로 2대 조합에는 단임조합도 정취와 직원들의 불공정 처우 및 인사위헌의 참여, 직원의 정년 연장 등의 사안으로 단임조합을 비롯하여 대학내각의 대립과 대립의 양상 등으로 88년 초의 파업결정으로 이어졌다. 그 후 파업이 끝나자 무렵 대학내각은 조합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찾아 놓는 외래교과를 진행하였고 그중 제3, 4대 노동조합이 취임하였다. 또한 92년 제4대 노동조합은 인사규정, 임금규정, 직원징계규정 및 직종분류, 장기근속자 보상규정,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확정하였다.

올해 6월 제6대회를 맞는 노조는 합법적 지위를 통한 조직의 확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학생노동조합, 근로복지기금 등 민주적 대학 행정체계 건설과 노조의 결속 및 의사결정력을 통해 노조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현재 직원노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계속적인 탈퇴현상이다. 창립당시 321명의 95% 조합원을 자랑하던 노조가 현재 350명 중 142명 40%로 축소되었고 탈퇴현상에 대한 반발은 제지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교 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동안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대학내각에 대한 소의에 앞선 대의명령에 대한 참여, 재정의 독립성 확보, 대립관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제도의 개선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적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운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조합원 모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만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오은진 기자

제6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정열씨를 만나



“사무직 노조원 탈퇴현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는데

·창립 당시 직원의 95%에서 현재 40%로 축소를 따라 활동영역도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비롯한 주요한 업무는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동조합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도 빠진다는 사무직 직원의 탈퇴현상과 조합원 대부분이 기 능직이라는 점입니다.

·제6대 직원노동조합의 활동은

·2년동안 노동자의 기본정신을 잘살리지 못했. 그러나 대외로 풀려 노 노력으로, 학내 부분은 많지만 정치 개선에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실리를 찾는 데 앞섰다고 할 수 있다.

·노조조합을 하면서 비노조원들에게 느꼈던 점은

·비노조원은 노조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남이 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직원들의 무사안일 태도는 싫어졌다. 한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절박하다. 등록금 투쟁에 동참을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의존도가 높으므로 대학내각도 불신했다고 본다.

·오는 7월에 출범한 제7대 노동조합에게 하고 싶은 말은

·6대가 했던 방법을 고수하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지속적인 조인과 협 조로 도를 찾아야.

대학단신

윤인

제10회 부총장배 에이스 오픈 테니스대회 진행

테니스를 통한 친목도모 동아리 에이스는 오는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제10회 부총장배 오픈 테니스대회를 자연대 건물 앞 코트에서 열 예정이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아주·경기·수원·중앙대 등과 본교 서울캠퍼스도 참가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윤종식(자연·정보통신 3)군은 "이번 대회가 왕산 학생이 하나되는 자리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부총장배 농구대회 열려

지난 16일(목)부터 시작된 농구동아리 파사스 주최 제6회 부총장배 농구대회가 오는 31일(금)까지 진행된다.

예선경기는 오는 27일(일) 마강교에 오는 30일(목) 4강 진출팀과 파사스의 올스타 게임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대회를 마지막으로 31일(금)에는 남자 테니스대회와 여자 자유투 경기도 열린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박진식(동학·중국어 4)군은 "이번 행사는 왕산 7000여명의 학과 동아리간 친목도모와 파사스의 홍보를 위해 준비했다"라며 "참가학생들이 모두에게 편안하고 즐겁고 열정적인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라고 행사소감을 밝혔다.

서울

취업정보센터 공직설명회 개최

학생취업정보센터 주최의 상반기 공직설명회가 오는 30일(목) 2시 대학원 210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직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릴 설명회는 총무처 인사과장과 담당과장, 대학원공무원 전담부(정치외교학과, 총무, 정보통신부 5급)와 박호(정치외교학과, 외부부 5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태국어과 창립 30주년 맞이 기념행사 치러

창립 30주년을 맞는 서울캠퍼스 태국어과는 교수, 학생, 동문 3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28일(목)부터 5일간 캠퍼스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8일(목) '세계의 곳곳은 바로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박정열(기독교보도 보도국)씨의 강연을 시작으로, 30일(토)엔 태국경제에 대한 태국대사 초청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태국이 말하기 대회가 31일(일) 부산대, 용인캠퍼스, 서울캠퍼스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1, 2, 3위를 차지한 학생들에게는 타이항공사 후원의 태국항공 항공티켓이 주어진다. 또한, 6월 1일(토) 대학원 105호에서는 '30주년 맞이 동문인의 밤' 행사와 1부의 기념식 및 총장축사, 태국대사 축사와 2부의 반찬국 1곡과 태국노래 2곡을 합창할 노래부 공연과 총장의 전폭응원 등의 내용으로 치러진다.

이번 30주년 행사를 준비한 김철범(3)군은 "과거엔 적이 학생모두가 참여했음에도 준비하는데 힘이 들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행사로 인해 태국어과 학생들의 단합의 장이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1회 우수 학위 논문 현상 공모전 열려

본교 대학원은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한 제1회 우수학위 논문현상공모전과 관련 선정된 우수논문 시상식을 지난 23일(목) 대학원 105호에서 진행했다. 외대발원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서사학 논문
 - △인문사회학과 분야 박희호: 여형 계약에 관한 고찰(사회지역학 분야)
 - △사회학 분야 박희호: 여형 계약에 관한 고찰(사회지역학 분야)
 - 박사학위 논문
 - △인문학 분야 정영일: 하나니 켈러의 회화에 나타난 역사관과 국가기법
 - △사회과학 분야 김용철: 집단적 노사 자치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학사 논문
 - △자연과학 분야 안영철: Td 4에 대한 메틸렌아민 유사체를 응용한 새로운 반응.

한편 우수작을 시상한 학생은 상장 및 미주향공공과 현금 200,000원을 수여받으며 가작을 수상한 학생은 상장과 미주 향향공공이 부여된다.



양껏 만 가져가세요! 2주전부터 본교 미문화센터 학생식당에서는 남는 음식들의 양을 줄이기 위해 자유배식을 제한적으로 시행,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요즘이다. 후생부의 능동적인 홍보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고영진 기자

자연대 전학대회 열려

자연대 전학대학회 주최의 전학대회(전학대)가 지난 21일(월) 제4회 31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캠퍼스 최초로 열렸다.

3·4월 사업내용과 그 평가로 시작된 이번 전학대회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과외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상행문 주요안건으로는 △5·6월 학생의 사업계획 및 인문 △5월 정시 개소 △대동계 △자연대 사물함을 학구대로 교체 등이다. 특히 내일(28일)부터 시작되는 대동계 행사를 통해 민고 따를 수 있는 학생회상을 결정하기 위한 결의가 다져지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한 자연대 학생회장 김용철(물리학과 3)군은 "학내대표들이 모인 이번 자리를 통해 다채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과외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라며 "첫 회의를 미진한 면을 보였지만 열린 토론과 과외활동의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자리였다"라고 이번 행사를 평가했다.

취재특수

형광등 행진

지난 22일(수) 인문과학관 607호에서 러시아어과 3학년 정공수군이 이끈다 학생들이 나간 뒤 중 뒷문쪽에 있던 형광등이 파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본교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은 1979년 야간강의를 개설할 당시 설치되어 거의 16년동안 사용된 것으로 형광등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관리과 관계자는 "형광등을 오래 사용하면 자칫하여 잘못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릴 수도 있으며 강의실에 설치한 것은 안전기가 한쪽에 달려 있으므로 무거워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또한 "조도가 약해진 것이 있어 계속 점검·교체중이다. 그러나 점검을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70%정도가 교체된 상태이지만 교량이 아지 전에는 교체하지 않다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수정하는 대학내각의 안전사고에 대한 무사안일적 태도는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은진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1996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대학원(☎961-4104, 962-7117)

1.모집과정 및 학과 인원

가.석사학위과정(6개월제 39개학과): 각 학과 학인명
아.문 학 계: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국어국문학, 포르투갈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유럽어문학, 언어학, 스페인어

인문과학계: 철학, 사학
지역 학 계: 아주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구지역, 북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서구지역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공 학 계: 컴퓨터공학

나.박사학위과정(6개월제 24개학과): 각 학과 학인명
아.문 학 계: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랍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인문과학계: 철학,
지역 학 계: 국어국문학, 언어학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공 학 계: 컴퓨터공학

2.일반전형
1)원서접수: 96년 5월 16일(목)부터 6월 10일(월)까지
2)원서접수: 96년 6월 4일(목)부터 6월 10일(월)까지

3)전형일시: 96년 6월 15일(토) 오전 10시

4)전형방법: 필답시험 및 구술시험

가.석사과정: 1)전공 2)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구술시험
나.박사과정: 1)전공 2)영어 3)제2외국어(영어과,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철학과, 법학과에 한함) 4)구술시험

세계경영대학원(이전)(☎961-4109)

1.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0명
2.모집과정: 가.경영학석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

나.경제학석사 - 국제통상학, 세계지역연구학

3.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원서접수 및 접수: 96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5일(화)까지
5.전형일시: 96년 6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국가 고급공무원 및 기업체 근무는 특별전형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운사 시험에 특권이 있음
*비 상경계 전공자로 입학할 수 있음. 학점성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해운계통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우대함
*국가공무원 및 군·경·각급교 교직원에게 수료시가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교육대학원(이전)(☎961-4116, 963-6881)

1.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각학과 학인명
2.모집과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일어교육, 서반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역사교육, 물리교육

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상담교육, 유아교육, 전자기계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3.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원서접수: 96년 6월 3일(월) - 6월 14일(금)까지

5.원서접수: 96년 6월 10일(월) - 6월 14일(금)까지

6.전형일시: 96년 6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7.특 전

*원격교육에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원격교육(시간강좌제)의 자격 및 경력은 서류전형시 반영됨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정리과학대학원(이전)(☎961-4093, 962-3950)

1.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2.모집과정: 공공정책학: 공공정책학, 공공행정학, 공공감사학: 공공감사학

외교정책학: 외교안보정책학, 북한학: 북한학

신문방송학: 신문방송학, 방송전공: 방송전공

광고홍보학: 광고홍보학, 홍보전공: 홍보전공

3.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원서접수 및 접수: 96년 6월 3일(월)부터 6월 24일(월)까지

5.전형일시: 96년 6월 29일(토) 오후 2시

6.재학사: 입학시험(소정양식), 명함상 사진 4매, 졸업, 성적증명서, 자격 및 경력증명서 각1부

7.특 전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국가공무원(군·경로)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공 고

1996학년도 제2학기 교내 성적강학형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율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 1.신청기간: 1996. 6. 3(월) ~ 1996. 6. 28(금)
- 2.신청장소: 학과과장실
- 3.신청서류
 - 가. 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각 학과과장실 비치)
 - 나. 재산세 과세 증명서 1부(단, 무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증명서)

1996. 5.

학 생 처 장

공 고

1996학년도 제2학기 교내 고시강학형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율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 1.신청기간: 1996. 6. 3(월) ~ 1996. 6. 28(금)
- 2.신청장소: 학과과장실
- 3.신청자격: 1996. 1. 1 ~ 1996. 6. 30 기간중 국가에서 시행하는(사법, 행정, 외부, 회계사, 군법무관, 기술, 입법)고시에 1차이성 합격한 재학생
- 4.구비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1996. 5.

학 생 처 장

